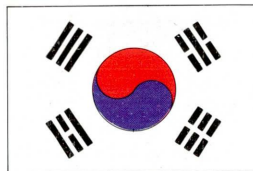


태극기

태극기는 한국 국기로써 상징성이 아주 풍부하다. 그것이 상징하는 것도 국가적 차원이 아닌 우주적인 질서를 규명하는 철학사상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중앙의 '태극'은 하단의 푸른색이 '음'을, 상단의 붉은색이 '양'을 상징한다. 이것은 동양철학의 우주론과 존재론의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 태극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검은색의 길고 짧은 선으로 조합된 4개의 기호를 '4괘'라 하는데 음양의 이치를 만물의 이해에 적용시킨 것이다.

'4괘' 가운데 왼쪽 위의 것은 하늘·봄·동쪽, 오른쪽 아래의 것은 땅·여름·서쪽, 왼쪽 아래의 것은 해·가을·남쪽, 오른쪽 위의 것은 달·겨울·북쪽을 각각 의미하고 있다. 태극기는 조선조 말기였던 1882년 처음 사용되었으나 국기로 정식 제정 공포된 것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시이다.

애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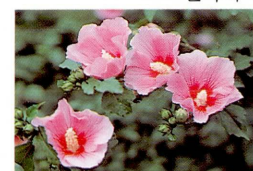
애국가는 한국의 국가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1930년대 후반 오스트리아 빈에 유학중이던 안익태가 작곡한

16소절의 간결하고 장중한 곡으로서 작사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로 사용되고 있으며 1절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무궁화

무궁화는 한국을 상징하는 꽃으로 옛날부터 한반도 전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었다. 꽃은 아름답고 피는



기간이 7월부터 10월까지로 길어 우리 민족의 오랜 사랑을 받아왔다. 홑꽃은 반드시 이른 새벽에 피고 저녁에 시들므로 날마다 새로운 꽃을 피우며 공해에도 강하고 번식이 쉽다.

일제 침략시기에는 한민족의 상징적 꽃이라 하여 전국적으로 뿌리 채 뽑히는 수난을 겪기도 했지만 1950년대부터 서울대학에서 새품종개발에 힘써 화랑·배달·새 아침·일편단심·한마음·평화 등 다양한 품종을 육성하였다. 꽃빛깔은 연분홍·분홍·다홍·보라·자주색 등이 있고 정원수, 나무울타리로 널리 이용된다.

중국고전 고금기에 "君子之國地方千里多木槿花"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옛부터 한반도에 무궁화가 만발했음을 알 수 있다.

취업문제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불법체류시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상당한 벌금이 부과됨과 동시에 강제출국 및 향후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 국정부는 국내 노동인력 시장의 안정과 제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외국인의 국내취업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국국적을 가진 동포도 같은 이유에서 국내취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국내기업이 중국에 투자한 회사의 근로자 또는 기계설비 수출에 따른 현지 기능인력의 한국내 기술연수와 외항선박의 취업은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1993년 4월 1일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외국인이 사전허가없이 불법취업하거나 국내인이 외국인의 불법취업을 알선·권유 또는 불법고용할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출입국과 체류관련 협조 요구사항

중 국국적 조선족 동포는 같은 혈육이지만 국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외국인 대우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한국정부에서는 한·중간 관계개선이후 중국국적 동포의 입국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지난 몇년 사이에 중국국적 동포들과 동남아인들의 불법체류·취업 사례가 급증, 1993년 5월 현재 6만여명에 이르러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가 현저히 감소될 때까지는 사증(비자)을 제한적으로 발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정부에서는 5백만 해외동포들이 가급적 많이 그리고 자주 고국을 찾아 상호간의 유대가 끈끈해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한·중간 동포들의 교류에 있어서도 양국의 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정당하고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정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동포끼리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풍토가 형성되어 바람직한 한민족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부 록

시차

한국은 중국보다 1시간 빠르다. 따라서 서울이 오전 9시일때 북경은 오전 8시이다.

전화사용법

한국의 공중전화는 주화를 사용하는 것과 자석식 카드(3천원권, 5천원권)를 사용하는 것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국제전화는 자석식 카드를 사용하는 전화기로만 통화가 가능하다.

공중전화의 시내 기본요금은 30원이며 시외전화는 거리에 따라 다르다. 시외전화는 상대방 지역번호, 국번호, 가입자 번호를 차례로 누르면 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의 720-1234번을 걸 때는 051(부산지역번호)+720+1234순으로 눌러야 하며 지방에서 서울로 전화를 걸 때는 서울지역번호 02를 먼저 눌러야 한다.

한국에서는 세계 170여개국과 통화가 가능하다. 각 가정에서 국제통화를 원할 경우 직접 버튼(단추)을 눌러 사용해도 되고 0077번을 눌러 국제교환원을 통해서도 된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전화는 가정의 일반전화기

로 직접 걸든지, 전신전화국에 가서 수동통화 신청을 하든지 해야 하며 공중전화기로는 통화가 안된다.

긴급을 요하는 전화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범죄신고 112번, 화재신고 119번, 응급환자신고 129번, 전화번호 안내 114번 등이다.

근무시간

국가 공공기관은 평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만 일하고 일요일은 휴무한다.

그러나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평일에 오후 5시까지만 근무한다.

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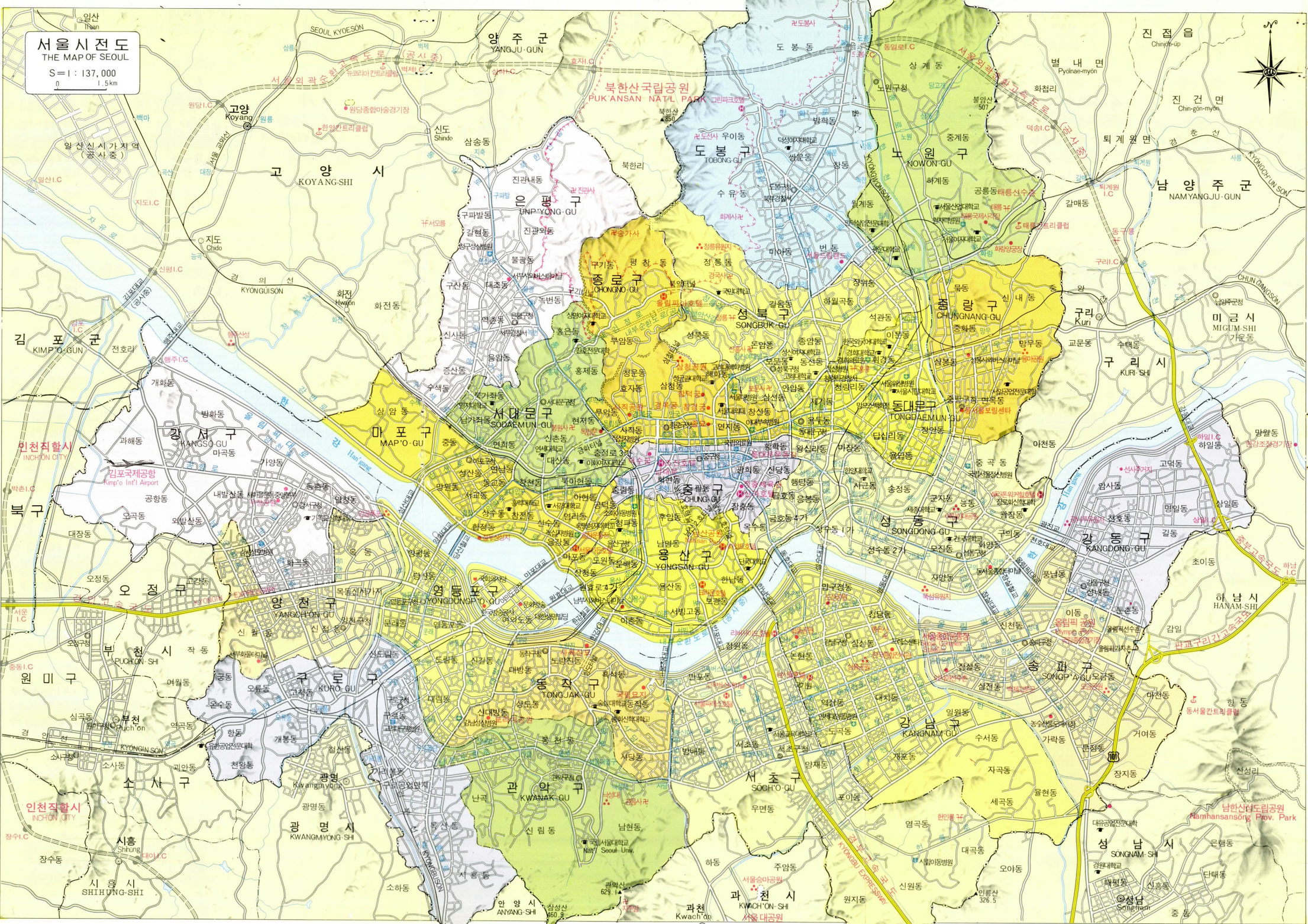
한국의 기본 통화단위는 '원'이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일반화폐는 지폐와 주화가 있는데 지폐는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등 3종, 주화는 1원, 5원, 10원, 50원, 1백원, 5백원 짜리 등 여섯가지이다. 한국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모두 외화와 바꿀 수 있는 대환권이다.

유용한 전화번호

- 주한 중국대사관 (02)756-9553
- 관광교통안내 (02)713-9074
- 대한적십자사 (02)755-9301
- 한국방송공사(KBS) (02)781-1000
- 대한항공 (02)756-2000
- 아시아나항공 (02)774-4000
- 위동항운 : 서울 (02)711-9111 인천 (032)886-6171
- 위해 (5451)232634
- 진천항운 : 서울 (02)514-6226 인천 (032)887-3963
- 천진 (22)359000
- 서울역 (02)392-7788
-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 경부선 (02)535-4151~2
- 호남·영동선 (02)591-3402~4

대한민국 지도





목차

1. 그리운 고국은 어떤 곳인가? 3
지리/역사/한민족과 한국인/정치와 행정/경제/전통문화/종교/명절/수도 서울의 어제와 오늘
2. 한국인의 삶 11
기독교생활/학교생활/현대생활/직장생활/의식주생활/생활의 이모저모/사회보장과 복지/여가생활/국내외 여행/세계속의 한민족
3. 우리의 주권은 통일 19
남북한의 분단/남북한은 왜 통일해야 하는가?/한국의 통일정책/기초 남북관계의 발전
4. 한국 체류 안내 24
숙박/식사/교통/안전/물건사기/관광/문화/예술/공공질서와 습관
5. 초청과 출입국에 대한 이해 33
초청절차/출입국여행수단/통관시 유의사항/체류기간/연장/취업문제/출입국과 체류관련 협조 요구 사항
6. 부록 36
시차/전화사용법/근무시간/통화/유용한 전화번호/대한민국 전도/서울시 전도/서울시 지하철 노선도

국내외 여행

모 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국내외 여행을 할 수 있다. 1989년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조치 이후 해외여행자 수는 증가일로에 있으며 1992년에는 전국민의 약 4.6퍼센트인 2백 4만 여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1992년중 한국을 다녀간 외국인 여행자는 3백 23만명이었다.

세계속의 한민족

고 국을 떠나 해외에 살고 있는 한민족은 전세계 1백 29개국에 약 5백만명으로서 남북한 인구 6천 5백만명의 약 8퍼센트에 이른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 1백 93만, 미국 1백 53만, 일본 71만, 구 소련 46만명 등 한반도 인접 4개국에만 약 4백 63만명이 살고 있다. 그 외에 홍콩·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7만 4천명, 독일·불란서 등 유럽지역 6만명, 캐나다·브라질 등 미주지역 16만 3천명,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 1만 2천명, 케냐 등 아프리카 지역에 2천 7백명이 살고 있다.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국력은 바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동포의 숫자와 밀접한 연계성을 갖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고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라 해도 그들이 품고 있는 애국심은 본국인 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다 하겠다. 해외 한민족은 비록 생활의 현상과 그동안 역사의 경험이 다르다 하더라도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교육열이 높고 두뇌가 우수한 민족으로 손꼽힌다.

어디를 가든지 민족의 언어와 전통문화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중국·미국·일본·구 소련 등 동포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는 우리 말 언론사와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5백만 해외동포를 포함한 한민족은 세계 어느 곳에

살든지 국제화 시대를 맞아 다른 인종, 민족과 협력해 살며 또한 본인이 소속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 가고 있으며 한 핏줄을 이어 받은 배달겨레로서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해 '한민족의 자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



7천만 한민족의 자긍심을 드높인 서울올림픽대회 개막식

3.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남북한의 분단

8.15 해방

1910 년 우리의 주권을 빼앗아 간 일본은 우리 민족의 정치활동과 민족운동을 탄압하고 경제적 착취를 강행하여 민족문화 까지도 말살시키려 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이에 굴하지 않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수호하고자 일본을 상대로 독립 투쟁을 펴 나갔다.

1919년의 3.1 독립운동, 상해에 세운 대한민국 임시정부, 1920년 북간도의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의 승리 등은 민족정신의 승리이자 독립의지를 보여준 좋은 본보기였다.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군에 패배하여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36년간에 걸친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극복하고 마침내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해방의 기쁨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

8.15 광복은 우리 민족이 그토록 열망하던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국토 분단과 민족 분열이라는 또 다른 비극과 시련을 안겨 주었다. 즉,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한다는 구실 아래 한반도에 진주한 미·소 양국군이 38선을 경계로 이북은 소련군, 이남은 미군이 분할 점령하였다.

그러나 한반도에 통일 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1947년 국제연합 총회가 국제연합 감시하에 남북한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여 독립 정부를 수립하도록 촉구하는 결정을 내리게 하기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소련과 북한이 국제연합의 결정을 무시하고 국제연합 한국임시위원단이 북한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선거가 가능한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남쪽에서는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북쪽에서는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어 한반도에 분단의 비극이 시작되었다.

6.25 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고착화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전부터 전 한반도를 무력으로 적화통일하기 위해 인민군을 창설하였던 북한은 미 국무장관이 한반도를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발표를 하자 무력 남침을 준비하여 마침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8선 전역에서 일제히 기습공격을 감행함으로써 3년간의 동족상잔의 비극이 시작되었으며 전쟁발발 3일만에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하고 계속 남진하였다.

국제연합은 6월 27일 안전보장이사회를 개최하여 북한의 남침을 국제연합헌장을 위배한 ‘평화의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적대행위의 중지와 38선 이북으로 철수를 명령하였으나 북한이 유엔의 결의를 무시하고 공격행위를 계속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이 국제연합군을 구성·파견하여 6.25 전쟁에 참전하였다.

약 3년 동안 밀고 밀리는 치열한 공방전이 거듭되는 가운데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어 오늘날 까지 휴전상태로 머무르고 있다.

휴전 이후에도 북한이 1968년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을 비롯하여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에 이르기 까지 크고 작은 수많은 대남도발을 계속하는 등의 대남적화통일전략을 포기하지 않아 남북한간에 교류가 단절되고 상호불신과 분단의 고착화가 진행되어 왔다.

남북한은 왜 통일하여야 하는가?

우 리 민족은 수천년 동안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라는 역사적 전통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남북분단 이후 서로 다른 이념의 대립으로 사회적 단절과 이질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남북통일은 이산가족의 고통과 군비경쟁으로 인한 국력의 낭비 및 전쟁에 대한

드리는 경우가 많다.

사회보장과 복지

자 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아래서 발생하는 소득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는 입원시 개인이 병원비의 20퍼센트만 부담하며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은 무상으로 의료혜택을 받는다.

또한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의 일정액을 보험료로 납입하고 국민이 60세에 이르거나 질병이나 사고로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노령연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음으로서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한다.

이와 함께 생활이 곤란한 영세민은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라 생계보조비를 지급 받으며 학비·생업자금 용자와 값싼 연구 임대주택 입주혜택도 받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버스를 무임승차 할 수 있으며 70세 이상 가구주 및 보호대상 노인은 노령수당을 지급 받는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는 생계 보조비와 의료비가 제공되며 법률로 각 기업이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보장 혜택을 받으며 만년의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는 노인들

여가생활

영 화·연극관람, 음악감상, 야구·씨름·축구 관람, 장기·바둑·낚시·등산·붓글씨 쓰기·꽃꽂이 등 다양한 여가생활을 누리고 있다.

최근에는 각 가정마다 자가용 승용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주말이면 가족단위로 도시 근교의 강이나 산을 찾아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며 생활의 여유가 있는 계층은 스키(滑雪)나 골프(高爾夫)를 즐기기도 한다.

한강변의 노천수영장



편문점



주례는 신랑의 학창시절 스승이나 사회적으로 덕망있는 사람에게 부탁한다. 예식이 끝난 후 가정이나 대중 음식점에서 잔치음식을 하객들에게 대접하는데 요즈음에는 이같은 방법 대신 조그마한 선물로 답례하기도 한다.

신혼여행지로는 과거에는 제주도, 설악산, 온천지역이 주종을 차지했으나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일본·태국 등 아시아, 하와이·괌 등 태평양의 휴양지로 떠나는 신혼부부가 늘어가고 있다.

혼수와 예물은 가정형편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보통 신랑은 주책과 신부의 옷, 반지·목걸이 등 패물을 마련하며 신부는 시대 식구용 예물, 신랑의 옷, 패물 및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 그릇·이불 등 가정살림에 필요한 물건들을 도맡아 준비한다.

전통혼례행렬



회갑

전통관습대로 만 60세 생일날을 회갑이라 하여 특별한 생일상을 준비한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친척과 이웃사람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장수를 축원한다. 그러나 생활 수준과 의료수준의 향상으로 최근 평균수명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도시에서는 성대한 회갑잔치 대신 부부간에 기념여행을 떠나는 등 그 행태가 변하고 있다.

장례

절차가 간소화되어 보통 3일장이나 외국에 있는 자식이 미처 도착하지 못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일장도 행해지고 있다. 상복은 남자의 경우는 검정색 양복을 입고 팔에 상장을 두르며 여자는 하얀 소복을 입는다. 도시에서 운구는 상여 대신 장례 전용 버스를 이용하며 장지는 고향에 선산 또는 가족묘지가 없는 경우에 도시 근교의 공원묘지를 택한다.

공무원·회사원의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시 상주에게 5일간의 휴가가 주어진다.

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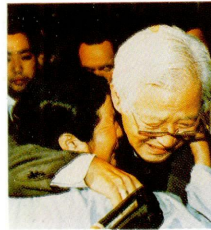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전통적인 제례가 행해지고 있다. 음식은 유교적 제례기준에 따라 특별히 차리고 제사시간은 밤늦게 시작하여 자정전에 마친다. 기독교 가정에서는 제례를 미신으로 간주하여 매년 사망일에 추모예배만

공포 등 분단으로 인한 민족적 비극의 해소는 물론 남북 경제통합에 의한 경제발전 및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제고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민족적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통일은 북한의 폐쇄된 사회를 주민을 위한 살기 좋은 개방사회로 변화시켜 북한주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인권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민족의 노력과 정성을 모아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아울러 독일 및 예멘의 통일 이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남북한의 통일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안정 및 세계평화의 유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산가족의 재회



한국의 통일정책 기조

한국에서는 1993년 2월 25일, 국민의 높은 지지 가운데 32년만에 순수 민간정치인 출신인 대통령이 선출되고 명실상부한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통일정책 추진에 있어서 참된 의미의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새 정부의 통일정책은 금세기내 통일된 선진민주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단계를 거쳐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며 통일의 단계는 화해와 협력의 단계, 남북연합의 단계를 거쳐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이룩한다는 3단계 통일방안이다.

또한 새 정부는 이러한 통일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합의’, ‘공존공영’ 및 ‘민족복리’를 새로운 통일정책 추진의 기조로 설정했다.

‘국민합의’는 자발적인 국민합의와 참여를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남북단일팀을 응원하고 있는 관중들



바탕으로 통일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문민 민주정부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확고한 원칙에 기초하여 공명정대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통일정책을 둘러싼 당국과 비당국간의 긴장, 마찰, 반목해소 및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에 입각한 대남분열 책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공존공영’은 남북한이 공존공영의 정신으로서 교류하고 협력하며 북한을 고립시키거나 봉쇄하지 않고 적극적인 참여화 정책을 추진하고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재발 방지 및 평화공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족복리’는 남북한이 특정이념과 체제보다는 민족이익을 우선에 두는 정책을 지향해 나가며 민족전체의 삶의 질 향상, 민족구성원 전체의 자유와 평등 및 인간존엄이 보장되고 이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남북한 관계의 발전

국 제정세의 흐름에 큰 영향을 받아온 남북관계는 1980년대 중반이후 국제정세의 변화로 분단이후 지속되어온 적대와 대결관계에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에 입각한 소련의 대외정책은 세계질서를 점차 탈 냉전화, 탈 이데올로기화하면서 소련 및 동구권의 급격한 체제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에도 영향을 크게 미쳐 1988년 서울올림픽에 소련, 중국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 등 1백 60개국을 대거 참가하게 하였다.

또한 최근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한·소 및 한·중수교, 북한·일본의 수교회담 및 북한·미국의 접촉 등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특히 1990년 동·서독의 통일은 한국 민족에게도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동시에 민족적 각성을 촉구하였다. 남북한은 이러한 세계질서의 변화와 민족적 요구를 바탕으로 상호간에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실시할 필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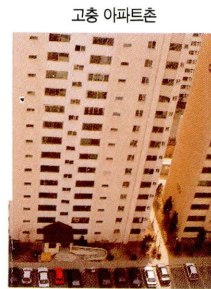
주거생활

주택은 원칙적으로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 주요 국영기업 등이 소유하고 저소득층이나 소속 사원에게 장기 임대를 해주는 공공성 주택이 있기는 하나 많지 않다.

최근에는 단독주택 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져 가고 있다. 아파트는 평균 방 2-4개, 거실, 부엌, 화장실을 갖추고 있으며 넓이는 40-150 평방 미터 정도이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도록 만든 다세대 주택이 90년대에 들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장려하기 위해 자금 융자·세금완화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독립식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5백 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높은 세금 등으로 간접 규제하고 있다.

국영기업 또는 민간 건설회사가 새로 지은 아파트는 일정기간 주택관련 예금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공급한다. 한국 정부에서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주택 2백만가구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에 기여했다.

1991년말 현재 농촌의 주택 보급율(개인 소유율)은 95.9퍼센트, 도시지역은 67.3 퍼센트이며 주택평균 규모는 77.8평방미터이나 1998년까지는 도시지역 주택보급율이 평균 90퍼센트에 이르게 된다.



생활의 이모 저모 결혼

한 국의 민법상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가 되어야만 혼인할 수 있으며 남여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래에 들어 결혼연령이 점점 높아져 평균 남자 28-29세, 여자 24-25세에 결혼한다.

결혼상대의 선택을 위해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성격·건강·학력·용모·경제력·가풍 등을 따진다.

결혼식은 보통 토·일요일 등 주말과 공휴일에 치러지며 예식장소는 전문 예식장이나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시설, 공공기관의 강당 등이 이용되며 야외에서 전통혼례 형식으로 치르는 젊은이도 늘어나고 있다.

의식주 생활

의생활

의류판매점이 밀집된 명동거리



평 상시에는 양복·양장을 입는다. 전통 한복은 설날·추석 등 명절, 결혼식·회갑연 등 집안 경사때에 주로 입으며 생산현장에서는 회사별로 특색있는 단체 작업복을 착용하기도 한다. 외출복은 백화점이나 전문 의류 판매점에서 기성복을 구입하기도 하고 양복·양장 전문점에서 맞춰 입기도 한다.

도시 곳곳에 제철이 지난 옷이나 작년에 유행했던 옷들을 대폭 할인하여 판매하는 점포가 많이 있으며 평범한 봉급 생활자들이나 젊은층들이 이런 곳을 많이 찾는다.

식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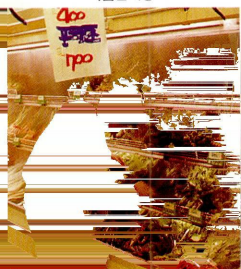
젊은층에서는 많이 서구화되어 가고 있으나 전통적인 식생활 관습은 그대로 지켜져 내려오고 있다. 보통가정의 주식은 쌀밥이지만 최근에는 건강을 위해 현미·울무·보리 등 잡곡을 일부러 섞어 먹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고기는 각종 성인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하여 생선이나 야채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져 가고 있다.

쌀 등 양곡은 농업협동조합 매장이나 재래시장의 양곡가게에서 자유판매하며 포장단위는 1-80키로그램까지 다양하다. 옛부터 경기도 일원에서 생산되는 쌀은 '경기미'라 하여 맛이 좋기로 이름이 나 있다.

김장은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담그며 핵가족화 현상, 대용부식의 풍부함 때문에 4인가정을 기준으로 한 가구당 평균 배추 20-30포기와 약간의 무우만을 사용한다. 각 가정마다 부식으로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은 필수적이며 최근들어 젊은 맛벌이 부부가정에서는 전문 식품제조회사의 제품을 구입하여 먹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각종 부식은 연쇄점(슈퍼마켓), 재래시장, 주택가의 소형가게 등 어디서든지 살 수 있으며 최근에는 24시간 문을 열고 연중무휴로 영업을 하는 '24시간 편의점'이 생겨 이곳에서도 구할 수 있다.

연쇄점(슈퍼마켓)의 식품판매장



제8차 북남고위급회담

평양
1992. 9. 15-18



제8차 북남고위급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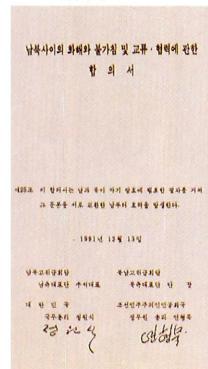
있다는 공통인식아래 1990년 4월부터 1992년 9월까지 8차에 걸친 북남고위급회담을 가졌다.

그 결과 1992년 2월 19일 제6차 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발효시켜,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한간의 자주적 노력에 의해 불신과 대결을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1992년 9월 17일 제8차 회담에서는 남북한간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부속합의서를 채택·발효시키고 그 이행기구를 구성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남북한은 상호간에 합의된 사항들을 이행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남북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으로 빠져들었으며 이어 발표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은 북한의 핵문제를 국제문제로 부각시킴은 물론 동북아 등 국제사회에 긴장을 몰고 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 이후 국제문제화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채택과 미·북한간의 외교교섭 끝에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를 유보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과 비핵화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상호사찰을 받아들일때 남북간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공존공영과 민족의 복리를 위한 통일의 길로 다가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4. 한국 체류 안내

숙박



고급호텔의 침실

다 양한 숙박업소가 있기 때문에 방을 구하기 쉽다. 특히 서울에는 많은 숙박업소가 있다. 숙박업소의 등급은 여인숙, 여관, 장급 여관, 호텔 순서로 나눌 수 있으며 호텔은 다시 무궁화 표시로 등급을 매기는데 무궁화 둘부터 특급 호텔인 무궁화 다섯개 표시까지 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여인숙·여관 등은 기차역·지하철역·고속버스 터미널 부근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1인 1박 평균요금은 여인숙 1만 2천원, 여관 2만 2천원, 호텔 5-15만원 수준이다.

장기여행자의 경우에는 업소에 따라 약간의 할인 혜택이 있으며 일반 가정집에 민박을 할 수도 있다. 호텔을 제외한 여타 숙박업소에는 별도로 식당이 없다. 여관 수준부터 단독 목욕탕과 화장실, 텔레비전이 딸려있다.

숙박업소를 이용하려면 먼저 사용할 기간을 밝히고 요금을 물은 뒤 숙박부에 성명·주소·여권번호등을 기록해야 한다. 요금은 같지만 새로운 숙박업소가 깨끗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잘 곳을 정할 때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식사

각 국의 유명한 음식을 모두 맛 볼 수 있다. 식당은 간이 음식점과 전문음식점으로 크게 나뉜다.

지하철역과 사무실 밀집지역에는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분식집이 있는데 김밥, 라면, 국수 등이 판매되고 가격은 1-2천원 선이다.

간이 음식점에서는 비빔밥·백반 등 밥종류, 설렁탕·육개장 등 뜨거운 탕종류, 된장·김치·동태찌개 등 찌개종류가 판매되며 가격은 2천 5백원-4천원 정도이다. 전문음식점은 한정식·일본음식·서양음식 등을 주로 판매하며 1인당 1-3만원 내외의 식사비용이 든다. 예전에 중국화교들이 주로 운영했던 대중적 중화요리점이 주택가 마다 많이 있으며 호텔이나 고급 중화요리 전문점에서는 사천·북경식 별미가 판매되기도 한다.

불나물비빔밥



출근시간에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민들

일하고 1시간 동안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1일 8시간을 일한다.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하며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은 휴무한다. 최근에 일부 제약회사 등에서는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고 있다.

퇴근 후에는 직장동료·친구들과 어울린다든지 수영·테니스(網球) 등 취미활동, 영화·음악감상, 외국어 배우기 등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즐긴다.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직업은 교수, 의사, 약사, 법조인, 언론인, 공무원, 국영기업·대기업 사원 등이나 사회의 다변화, 전문화 추세와 함께 갈수록 선호하는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택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누구나 일하는 만큼 벌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임금은 직종·직위·근무연한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월 1회 지급받는다. 1992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은 사무·관리직 96만원, 제조업체의 생산직 근로자 80만원선이며 대졸 신입사원의 월평균 보수는 60만원 수준이다.

근로자의 정년은 교원 65세, 사무직 61세, 기술직 58세이다. 휴가는 연간 20-30일의 정기휴가와 직장에 따라 12-20일의 보충휴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포함한 연간 휴무일수는 직종에 따라 87-1백 15일 가량된다. 임신부는 출산에 즈음해 60일간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대기업의 직제는 일반적으로 사원·대리(계장)·과장·차장·부장·이사·상무이사·전문이사·사장·회장 순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사 이상을 임원이라 한다.

살아나갈 수 있는 기초적 소양을 닦는다.

학비는 국민학교와 군단위 지역의 중학교 2학년까지는 무상이며 점차적으로 전국의 중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자 추진중이고 고등학교와 대학은 소정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대학생의 1년 평균 등록금은 국립대학의 경우 인문·사회계 1백20만원, 의대 등 자연계 1백50만원 내외이며 사립대학은 인문계 2백70만원, 의대 등 자연계 3백만원 내외이다.

대학생 수는 약 1백10만명으로서 인구 1만명당 2백60명 꼴이다.

군대생활

국 민 개병주의(皆兵主義)에 입각한 의무병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육군은 징병제, 해군·공군은 지원제에 의해 병력을 충원한다.

모든 청년 남자들은 똑같이 병역의무가 있으며 만 19세가 되면 징병검사를 받아 만 20세가 되는 해에 입대한다. 사병의 복무연한은 육군·해병대 26개월, 해·공군은 30개월이며 휴가는 복무기간중 총 35일간을 3회로 나누어 갈 수 있다. 본인의 질병·가정의 경조사시에도 별도의 청원휴가가 주어진다.

직장생활

모 든 국민은 헌법에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이와함께 근로의 권리와 근로의 의무를 갖고 있으며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노동조건 아래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고 있다.

한국의 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는 주로 자신의 적성·임금·안정성·발전성 등을 고려한다.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데 입사 희망자가 원하는 곳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와 필기시험 그리고 면접을 거쳐 합격여부가 결정된다. 직장에서 신입사원을 선정하는 기준은 당사자의 시험성적·능력·성품 등이다.

직장생활은 보통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정오까지

첨단사무기기로 자동화된 직장내부



식당의 영업시간은 업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해장국을 파는 집은 아침 7시경부터 일반식당은 오전 10시가 넘어서 부터 문을 열고 저녁 10시경 문을 닫는다.

대형아파트 단지나 학교 앞에는 전국적인 연계망을 갖춘 서양음식 판매점이 있다. 이곳에서는 고기와 야채를 곁들인 빵, 닭튀김 등과 음료수를 주로 판매하는데 1인당 2-3천원 정도면 즐길 수 있다.

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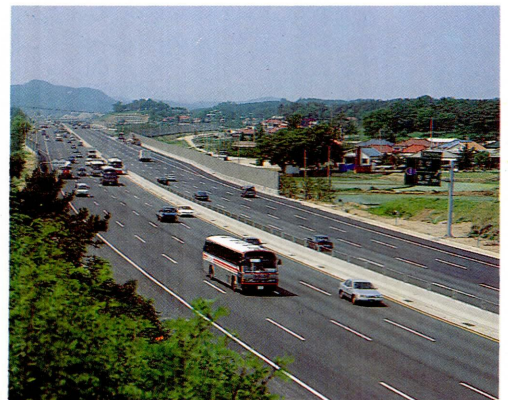
선 진국과 비교해서 크게 손색이 없이 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다.

서울의 김포공항은 동북아 교통의 요충지로서 국제선 제1청사는 외국국적 비행기만 이용하고 제2청사(신청사)는 한국국적 비행기와 일부 외국국적 항공기가 이용한다. 서울-천진, 서울-상해간 항공기는 제2청사에 타고 내린다.

국내선은 부산·제주·광주 등 전국 12개 도시를 잇고 있는데 서울-제주간 1인당 요금은 4만5천원 정도이다.

한국의 철도는 전국의 대부분 도시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다. 기차의 등급은 새마을호·무궁화호·통일호와 완행인 비둘기호로 나뉘지며 운행시간·열차의 종류에 따라 침대차·식당차가 붙어있다. 4백45키로미터 거리인 서울-부산간 새마을호 일반실 요금은 2만1천5백원, 탑승시간은 4시간 10분이며 통일호는 요금 7천6백원, 탑승시간은 5시간 20분이다.

주말에 철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2-3주전에 예약을



경부고속도로



김포국제공항 제2청사

해두는 것이 좋다.

고속버스는 서울을 기점으로 약 60개 도시와 연결되어 있다. 소요시간, 탑승요금은 기차의 통일호와 비슷한 수준이며 1-20번 좌석까지 금연석이다. 최근에는 차내에 전화기·냉장고 등을 갖추고 1대당 27명만이 안락하게 탈 수 있는 우등고속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요금은 일반고속버스의 1.5배 수준다.

한국의 각 도시에서 시내 교통은 대체로 버스나 택시를 이용한다. 서울·부산에는 지하철이 있으며 대구·인천은 지하철공사가 진행중이다.

버스는 각 지방별로 승차권 이용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서울에서는 ‘토큰’이라고 불리는 엽전모양의 승차권이 사용된다. 1인당 버스 기본요금은 2백50원이며 ‘토큰’은 정류장마다 설치된 판매대에서 살 수 있다. 냉방장치가 구비된 ‘좌석버스’는 1인당 5백50원의 요금을 받는다.

택시의 종류는 서울과 지방이 차이가 있다. 서울에는 일반·중형·모범택시 등 세종류가 있는데 택시의 기본요금(2키로미터)은 일반 8백원, 중형 9백원, 모범(3키로미터) 3천원이며 거리와 시간에 따라 요금이 추가된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의 일반·중형택시에 한해 할증료가 10퍼센트 가산된다.

김포공항에서 서울시청 및 시내 주요 호텔까지는 고급 공항버스가 운행되는데 1인당 요금은 3천 5백원이다.

지하철 승차권은 1회용과 5천원, 1만원짜리 정액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정액권은 사용횟수에 따라 자동으로 잔액이 표시된다. 출퇴근시간, 토요일 오후 등 차량이 붐비는 시간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정확하고 편리하다.

안전

한 국은 다른 국제적 도시에 비해 비교적 안전한 곳이다. 그러나 차량이 많기 때문에 길을 건널 때이나 야간에는 조심해야 한다.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물건을 분실했을 때는 주한 중국대사관 또는 각 경찰서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한국인의 삶

가정생활



휴일 오후를 즐기고 있는 일가족

한 국은 도시화·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과거의 대가족제에서 대부분 핵가족화 되어가고 있다. 젊은층에서는 자녀를 1-2명 정도만 가지기 때문에 한 가정의 평균인원은 3.8명으로 감소되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가족계획 표어도 있으나 아직 일부 계층에서는 남아선호 사상이 남아 있어 여아 보다 남아의 출산율이 높다.

또한 생활속에는 전통적인 조상 숭배의식, 친척간의 교류관습이 그대로 지켜지고 엄부자모(嚴父慈母)의 정신이 남아 있으며 가족성원간의 애정과 혈연간의 유대의식이 강조되고 있다.

학교생활

민 주교육은 한국의 교육 기본이념이다. 한국에서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시키고자 하는 인간상은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 능력과 도덕적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기본학제는 국민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이며 대학원은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이다.

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2학기이며 이 기간중에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포함되어 있다.

상급학교 진학제도를 보면,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무시험 입학을 하며 고등학교는 각 시·도별로 실시하는 연합고사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선발방법에 의해 입학할 수 있다.

1994학년도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대학 입학제도는 고등학교 때의 성적과 국가에서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기본으로 평가하나 대학에 따라서는 자체시험을 추가하기도 한다.

대학생은 1주일에 평균 20시간 정도 수업을 받으며 수업이 없을 때에는 예습·복습·교양서적 탐독·외국어 공부를 하거나 취미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건전하고 교양있는 사회인으로

현장학습에 나선 국민학생들



우리말로 ‘수도’라는 의미인 ‘서울’로 많이 불리웠다. 태조가 수도를 옮긴 이유는 서울이 국토의 중심부에 있어 통치에 적합하다는 점과 주변이 산으로 둘러 쌓여 있어 방어의 요충지라는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서울에는 총 길이 17키로미터, 너비 5.5미터, 높이 6-12미터에 이르는 성벽이 낙산, 인왕산, 남산, 북악산 등 외곽의 4개산에 걸쳐 축조되었는데 현재는 성벽의 일부가 북악산과 남산에 남아 있을 뿐이다. 또한 조선시대의 서울은 8개의 성문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었으며 오늘날에는 이 중 남대문, 동대문 등 세 개의 문만 남아있다.

지금으로부터 6백년전 서울이 이 땅의 수도가 된 이래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파괴되었다가 재건되었다.

첫번째는 16세기말 일본이 침략한 ‘임진왜란’ 두번째는 17세기 초 만주족이 침략한 ‘병자호란’ 그리고 세번째는 1950년 동족인 북한이 남침한 ‘6·25전쟁’이다.

이렇게 폐허가 된 수도 서울을 한국인들은 막대한 노력과 정성을 들여 전통적인 문화유산은 보호하고 현대적인 건축물을 새로 지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로 창조해 냈다.

최근 한국경제가 공업·상업 중심으로 바뀌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서울로 모여 들어 인구가 1천만명이 넘는다.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크게 강북과 강남으로 구분되며 한강에는 모두 20개의 다리가 남북을 연결하고 있다.

서울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1백만대를 넘기 때문에 심각한 도로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철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모두 4개선의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으며 1996년까지 현재 공사중인 5-8호선이 완공되면 지하철의 총 길이는 약 2백 80키로미터로서 서울 시민교통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서울에는 세계 17개국 25개 항공사의 비행기가 취항하고 있고 한국의 비행기는 21개국 44개 도시를 잇는 64개 노선을 날고 있어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탈바꿈하였다.

물전사기



남대문시장

서울 시내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대형백화점은 롯데, 미도파, 신세계 백화점 등이다. 백화점은 다양하며 질 좋은 상품, 친절함 서비스, 쾌적한 휴식공간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남대문시장은 노점상, 손수레 판매점, 현대식 백화점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형태의 상점을 갖춘 최대의 시장이며 관광명소이기도 하다. 건축자재와 가구를 제외한 전 품목을 취급하며 점포의 70퍼센트가 의류 도매상이다. 새벽 4시부터 문을 열어 하루 50만명 정도가 찾아온다. 일명 ‘도깨비시장’으로 알려진 수입품 상가에서는 식품과 잡화, 장신구, 화장품 등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한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반면 원하는 것을 어디에서 팔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남대문 시장의 매력이기도 하다.

동대문시장은 종로와 청계천 4가-6가에 걸쳐 자리한 종합시장이다. 노점상이 많아 더욱 좁아진 골목길로 들어서면 과일, 생선, 건어물, 면제품, 비단, 수공예품, 나전칠기 등 없는 것이 없다. 종로 5가와 청계천 사이에 인접한 골목에는 청바지, 등산용품 등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판다.

이태원은 서울에서 세계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태원이 서울속의 외국거리가 된 것은 조선시대부터 비롯된다. 당시에 ‘이태원’으로 불리우며 외국인 거주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었다. 그 후 배나무가 많다하여 이태원으로 바뀌었다. 약 1.5키로미터의 길을 따라 형성된 상가는 외국에 더욱 잘 알려져 있다. 외국에 비해 상품가격이 저렴하며 고가구, 장식장과 칠기, 피혁제품은 이곳에서 인기 좋은 상품이다.

롯데백화점



관광

서울 시내 관광

비원 : 창덕궁의 후원으로 임금과 왕비의 산책로이자 정원으로 쓰였던 이 곳에는 44개의 정자와 전통 건축물들이 고요한 숲속에 자리잡고 있다. 매일 시간별로 관광객을 제한 입장 시키는 곳이다.

덕수궁 : 조선시대의 별궁으로 1908년 중건되었다. 처음엔 왕족의 사저였던 곳으로 임진왜란 직후부터 궁궐로 사용했다. 경운궁으로



서울아경



비원

불리다가 조선시대의 마지막 왕 순종이 즉위한 후 고종의 장수를 비는 뜻에서 덕수궁이라고 했다. 조선시대의 궁궐임에도 불구하고 석조전 등 서양식 건물과 정원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남산공원 : 서울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곳이다. 푸르른 수목과 여러가지 텃새와 철새들이 산의 숨소리를 들려준다. 남산 꼭대기에 우뚝 선 2백 36미터의 서울타워는 사방 1백 50리를 굽어 볼 수 있으며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인천 앞바다가 보인다.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이 공원내에 있다.

경복궁 : 조선시대의 태조 이성계가 세운 정궁으로 1592년 임진왜란 때 소실 되었다가 1868년 고종황제 때 복원 되었다. 1910년 한일합방 후 일제는 한민족의 기상을 꺾기 위해 근정전·경회루 등 10여 동의 건물만 남기고 많은 건물들을 철거한 후 이곳에 조선총독부를 지었다. 궁내에는 수많은 국보급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으며, 우리조상들의 살아온 모습을 재현해놓은 국립민속박물관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 경복궁내 옛 조선총독부 건물을 개축하여 1986년 문을 열었으며 23개 전시실에 국보·보물·유물 등 약 7천 5백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올림픽공원 :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1986년 완공된 종합 문화·체육 공간이다. 공원내에는 역도(擧重), 사이클(自行車), 펜싱(擊劍), 체조, 수영 경기장등이 있으며 세계 66개국의 유명 조각가 작품 1백93점이 푸른 해자(壕字)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공원 중앙에는 고대 백제의 유적인 몽촌토성이 복원되어 있으며 160개국 선수들이 가져온 돌로 꾸민 기념비와 평화의 문이 공원의 남서편에 우뚝 서 있다.

올림픽공원



명절

수많은 신종교가 일어나 공존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 리 민족의 대표적인 명절은 음력 1월 1일 설날과 1월 15일 대보름 그리고 5월 5일 단오날과 8월 15일 추석을 손꼽을 수 있다. 설날에는 윗어른께 세배를 하고 마을공동 제의를 올려 공동체로서 일체감을 다지며 대보름에는 바쁜 농사철 준비의 짧은 휴식 기간을 맞아 새해 첫 보름달을 바라보며 여러가지 놀이와 춤, 노래로 잔치를 벌인다.

추석은 새로 거둔 곡식과 햇과일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고 씨름, 농악놀이와 같은 민속놀이로 풍년의 기쁨을 나누기도 한다. 설날과 추석때면 조상의 묘소에 성묘하고 가족친지를 만나기 위하여 귀향길에 오르는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데 정부에서는 이날들을 전후한 3일간씩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별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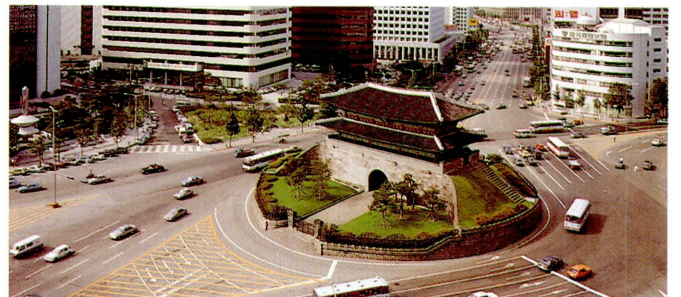


수도 서울의 어제와 오늘

오 늘의 서울을 아는 것은 한국의 역사와 성공적인 경제개발, 그리고 근면한 한국인을 아는 길이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심장부이며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의 중심지이다.

기원후 4세기경 삼국의 하나인 백제는 오늘날의 서울지역을 수도로 정했다. 그러나 신라에 의해 668년 한반도가 통일되자 통일신라는 수도를 경주에 그대로 두었고 다음 왕조인 고려는 개성을 수도로 삼았으며 1392년 조선왕조의 태조 이성계가 지금의 서울로 천도했다. 당시에 공식적으로는 ‘한성부’라고 하였으나 민간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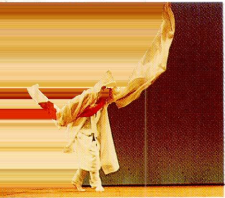
국보 제1호인 남대문과 주변거리



소박한 멋과 백색을 추구하는 우리민족의 특성을 나타내어 후손인 우리들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도 그 독특한 아름다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무용

승무



전통무용은 한민족의 정서를 가장 잘 담고 있으며 한민족의 실생활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정·중·동으로 표현되는 춤사위의 미학과 음악의 가락 및 장단 등이 다채로운 승무, 살풀이, 한량무 등의 독무 이외에 강강술래, 농악, 탈춤 등 향토성이 짙은 군무가 있다. 전통무용은 기품이 있으면서도 유유했던 장단의 흐름과 함께 춤사위가 우아하고 동선이 고와 신비로운 멋을 풍긴다.

민속극

민속극은 가면극과 인형극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가면극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연희자가 탈로 얼굴이나 머리 전체를 가리고 본래의 얼굴과 다른 인물이나 동물로 분장하여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놀이이다. 탈은 그 모습이 소박하면서도 한국인의 전형적인 얼굴모양을 살피는데 소중한 자료가 되는 것들이다.

과계승, 양반, 하인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현실폭로와 호색, 웃음과 탄식을 통해 풍자와 해학으로 당시 하층민의 상층민에 대한 비판과 서민생활의 실상 및 애환들을 보여주었다. 대표적인 가면극으로 양주 별산대놀이, 봉산탈춤 등이 있다.

남사당 놀이는 옛날부터 전승해온 유랑 연예인단으로 구성, 전국을 돌아다니며 민중오락을 제공해 온 재인, 광대들이 출연하는 가무백희의 종합예술이다.

종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한국은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불교, 유교, 천주교, 개신교, 천도교, 대종교, 원불교 등 다양한 종교를 믿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에는 여러 종교가 공존하여 왔다. 아득한 옛날부터 토속종교가 있었으며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불교문화가 크게 발달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융성하였으며 후기에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전래되고 천도교 등

서울 근교 관광

서울랜드



민속촌 : 조선왕조 5백년의 풍속을 재현한 곳이다. 2백 30여채의 각 지방 농가, 관가, 양반 가옥 등과 대장간, 도자기 가마 등을 갖추고 있어 당시의 생활 양식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곳에는 전통결혼식, 농악, 민속무용 등이 매일 공연되고 있어 한국의 옛 풍습을 실제로 보며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남서울 시외버스정류장에서 1시간 거리인 경기도 용인에 있다.

용인자연농원 :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의 경관이 좋은 산지에 위치해 있다. 동물원에는 사자와 호랑이 등 맹수가 자연 서식하고 있는 특별구역이 있어 관광객은 이곳을 유리로 뒤덮힌 특수버스를 타고 관람할 수 있다. 이밖에 식물원, 미술관, 수영장, 승마장과 각종 놀이시설이 있다.

서울 대공원·서울랜드 : 동물원과 식물원, 문화시설 및 각종 오락시설이 있다. 코끼리 열차가 공원 안을 순회하고 국립현대미술관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인 과천에 있다.

강화도 : 한강과 서해가 맞닿는 최북단에 위치한 섬으로서 한민족의 시조 단군의 전설을 간직한 마니산, 침성단 등과 유서 깊은 전등사가 있으며 인삼·화문석·왕골 등이 특산물이다. 서울 신촌 버스정류장에서 매 시간마다 버스가 운행된다.

통일전망대 :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북녘땅과 마주하고 있는 분단의 현장에 세워져 있다. 1천만 이산가족들이 마땅의 한을 달랠 수 있는 위로의 장소이자 민족분단의 아픔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다. 내부에 전망실·전시실·통일염원실 등이 있다.

관문점 : 1953년 휴전을 조인했던 곳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내에 자리잡고 있다. 현재는 군사정전회담, 남북적십자회담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외국인의 관광이 가능하며 대한여행사에서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관문점 관광을 알선하고 있다.



용인자연농원



가면극

전국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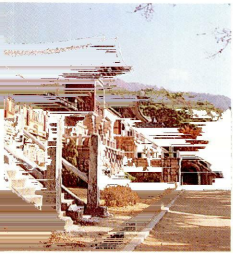
경주국립공원 : 한국 제일의 문화유적지이다. 경주 국립박물관은 한국의 옛 왕조인 신라 천년의 문화, 예술, 역사의 유산을 한자리에 모아 놓았으며 동양 최대인 에밀레종이 보관되어 있다. 그밖에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포석정, 분황사 등이 있다.

한려수도 : 경남 한산도에서 전남 여수에 이르는 바닷길을 말한다. 가는 곳마다 우리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를 볼 수 있다. 이 지역의 해상은 호수라고 해도 좋을 만큼 잔잔하며 수많은 섬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경치가 한폭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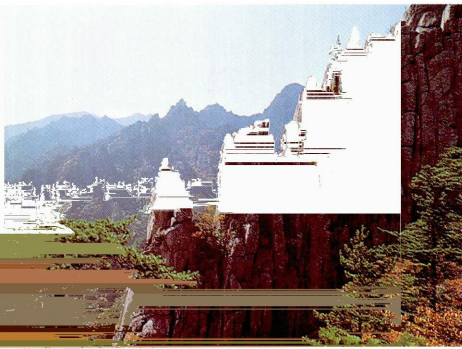
설악산 국립공원 : 한반도의 동쪽에 위치한 태백산맥 중 가장 높은 산이다. 가을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한여름에야 모두 녹아내려 설악이라 한다. 외설악엔 기암절벽과 거대한 폭포들이 수려하며 내설악에서는 아름다운 계곡미와 뛰어난 산세를 볼 수 있다. 사계절 어느 때 찾아도 때에 맞는 설악산 특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

독립기념관 :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정신을 후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 1987년 8월 15일 전국민의 성금 1천억원을 모아 완성했다. 기념관의 지붕은 구리기와를 엮었으며 약 5만점의 전시품과 국난극복의 상징인 거북선이 전시되어 있다. 1919년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높이 6미터, 지름 8미터의 3.1 정신상이 세워져 있고 옥외에는 높이 51.3미터의 독립기념관 상징탑이 우뚝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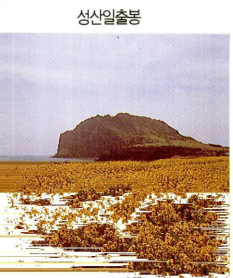
제주도 : 한반도의 남쪽 끝에 위치한 섬이다. 아열대 식물, 폭포, 색다른 초가집, 환상적인 용암층, 멋진 해변, 돌하루방 등으로 유명한 관광지이자 인기높은 신희여행지이기도 하다. 섬 중앙에는 남한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이 우뚝 서 있으며 용암굴인 만장굴, 대형분화구인 성산 일출봉 등의 관광 명소가 있다. 또 수영, 골프,



불국사



설악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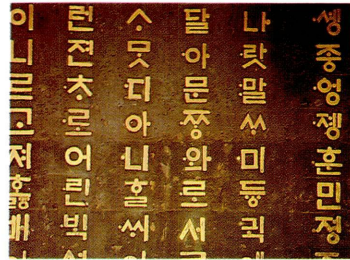


성산일출봉

전통문화

우 리 말은 알타이어계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와 어미에 의하여 격, 경어법, 시제 등 여러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고 어두에 자음군이나 유음이 오지 않으며

우리 말과 글



훈민정음

모음조화 현상이 뚜렷하다. 한글은 1443년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발음기관(자음자)과 하늘, 땅, 사람(모음자)을 상형하여 만든 음소문자로서 원래 28자를 만들었으나 지금 24자만 쓰고 있다.

세계 문자사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음악

전통음악은 정악과 민속악으로 크게 나뉜다. 정악은 궁중이나 지방관아, 그리고 민간 사랑방에서 주로 지식인들이 즐기던 음악이며 민속악은 일반 백성들이 사랑하던 음악이다.

전통음악공연



민속악에는 전문음악인이 놀이판을 벌여 부르거나 연주하던 판소리, 잡가, 산조, 시나위와 일반 백성들이 생활 현장에서 부르거나 연주하던 민요, 농악 등이 있다.

전통음악의 멋은 최고 푸는 긴장과 이완의 조화에 있다.

회화

회화의 특색은 우리민족 특유의 색채와 진솔함을 갖춘 자연주의로서 중국회화를 우리 취향에 맞게 선별적으로 도입하고 민족고유의 기질과 표현법을 자연스럽게 조화시켜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온 것이다. 전통회화는 대개 산수화, 영모화조화, 사군자, 인물화, 풍속화, 민화 그리고 탕화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선비나 사대부 계층이 여가와 취미로 그린 문인화와 직업화가들이 그린 풍속화로 양분된다.

조각·도예

조각은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크나 큰 발전을 이루었으며 실생활에서 주로 이용되었던 장신구와 도자기 등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고려시대의 청자는 우아하고 뛰어난 조형미를 지니며 조선시대의 분청사기, 백자 등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농림수산부, 상공자원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노동부, 교통부, 체신부, 총무처, 과학기술처, 환경처, 공보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등이 있다.

지방행정은 특별시, 직할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리 단위로 나뉘어져 있으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은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다.

한국의 정당은 집권 민주자유당과 야당인 민주당, 통일국민당 등이 있으며 1993년 6월 현재 집권 민주자유당은 총의석의 5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힘입어 오늘의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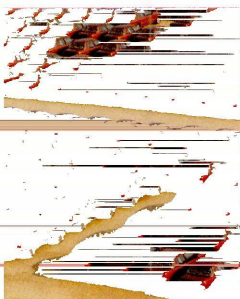
한국의 경제 규모를 1962년과 30년 후인 1992년을 비교해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은 87달러에서 6천 7백 49달러로 78배, 수출은 5천 5백만 달러에서 7백 51억 달러로 1천 3백 65배 증가하였다. 1993년 출범한 새 정부는 1998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1만 4천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중간의 교역총액은 1990년 38억 2천만 달러, 1991년 57억 7천만 달러, 1992년 82억 1천만 달러로 매년 급증추세에 있다. 중국은 한국의 3번째, 한국은 중국의 6번째 교역 대상국이다.

국제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 11개 신흥공업국 중 하나로서 열악한 조건 아래 가장 늦게 산업근대화가 추진된 나라이나 주요부문에서 세계 10위권 내에 든다. 1992년 기준으로 선박 건조량은 일본에 이어 2위, 상업 선박 보유량 9위, 자동차 생산량 10위, 철강 생산량 6위이다. 이같은 결과를 놓고 세계인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며 한민족의 우수성과 근면성을 인정하고 있다.

단기간내에 한국경제가 이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잘 교육된 인적자원의 풍부함, 국민 모두의 높은 근로의욕,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수출 주도형 성장전략의 성공 등으로 요약된다.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수출용 승용차



낚시, 사냥 등을 즐길 수 있는 체육·오락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문화·예술

영화

크게 국내제작 영화와 외국 수입 영화로 나눌 수 있다. 외국 영화는 주로 미국·홍콩·프랑스 등에서 제작된 것 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중국영화도 수입·상영되고 있다.

서울 시내의 영화관에서는 국내외의 최신작 뿐만 아니라 과거에 유명했던 외국작품도 수시로 재개봉 된다. 토·일요일은 관람객이 많아 예매를 하는 것이 좋다. 개봉관을 기준하여 관람료는 5천원 정도이며 아침 10시부터 하루 4-5회 상영한다. 영화관람 정보는 일간신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공연·전람

문화예술 공연과 전람회는 일년 내내 계속되지만 특히 봄·가을에 많이 개최된다.

서울의 경우 가극, 무용극 등 대형 공연물은 예술의 전당·세종문화회관·국립극장 등에서 소규모 연극·발표회 등은 신촌 등 대학가, 명동·대학로 등 젊은층이 많이 모이는 곳의 소형극장·전시장에서 주로 공개된다.

관람료는 공연·전람의 종류·좌석에 따라 다르나 최고 10만원 내외부터 최저 3-4천원 까지 다양하며 가끔 무료 공연·전시회 등도 있다.

도서

한국에서는 누구든지 책을 써 낼 수 있으며 어떤 책이든지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북한의 도서만은 판매하지 않지만 국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서울의 교보문고·종로서적·영풍문고 등은 세계적 규모의 대형서점으로서 어린이 동화책부터 전문서적, 각종 사전·비디오 자료 등이 판매되고 있다. 책 값은 여러가지이나 보통 소설책은 1권당 5천원 내외이다.

신문·방송

전국적 배포망을 갖춘 18개의 조·석간 일간신문이 있다. 이외에도 도청 소재지나 주요 지방도시에서 발행되는 지방 일간지가 다수 있다.

신문은 가정배달·시내판매 등 2가지 형태로

현대적 영상전시장



보급되며 시내 판매요금은 1부당 3백원, 가정 배달요금은 한달에 6천원 수준이다. 신문을 통해서 국·내외의 각종 소식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매일 신문을 보는 것이 유익하다.

한국의 신문산업은 자유경쟁제도이기 때문에 경쟁대열에서 나오되는 신문은 스스로 폐간·휴간하고 또 새로운 신문들이 생겨난다.

한국의 방송은 공·민영 혼합제도이다. 텔레비전은 공영인 한국방송공사(KBS)와 민영방송인 문화방송(MBC), 서울방송(sbs)이 있다. 방송시간은 평일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와 오후 5시 30분부터 자정까지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연장 방영된다. 라디오는 일반적으로 새벽 4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2-3시까지 방송된다.

공공질서와 습관

‘로 마에 가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한국과 중국은 사회체제와 제도, 생활습관의 차이가 적지 않다. 한국은 공항·지하철·병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금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담배를 피울 때는 금연구역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국의 언어습관은 뒷사람이나 처음 만난 상대를 부를 때 그 사람의 직위나 이름에 님, 선생, 씨 자를 붙여 사용한다.

차량은 우측통행, 사람은 좌측통행을 하게 되어 있으며 지하철·버스를 기다릴 때는 차례로 줄을 서는 것이 일반적 관습이다.

자가용 자동차를 탈 때 차주인이 직접 운전할 경우는 운전자의 옆좌석이 상석이며, 별도로 운전기사가 있을 때는 뒷 좌석중 운전자의 대각선 자리가 상석이 된다.

한국은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며칠씩 쉬면서 외국에서 온 친척·친구를 안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마음은 있지만 상대방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는 사회구조와 바쁜 개인생활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가까운 친척 또는 친구집에 며칠을 머무는 경우라도 약속한 날짜와 시간을 지켜 도착하고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적 축제인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40억 세계인을 놀라게 하였다. 우리 민족은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민족의 우수성과 저력을 세계로부터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제는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한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창조해 가고 있는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개국은 물론 과거 상이한 이념으로 인해 국교가 없었던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구라과 제국들과도 국교를 맺어 1993년 6월 현재 세계 173개국과 수교를 하였고 국제연합의 성원으로로서 지구촌의 발전과 인류의 번영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다.

정치와 행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는 임기 4년이며 법률상 국회의원의 수는 2백 99명이다. 국회는 매년 9월 정기회가 소집되며 회기는 1백일을 초과할 수 없다. 필요할 경우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국회가 소집되기도 한다.

정부의 형태는 대통령중심제로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며 부총리는 2인으로 경제기획원장관, 통일원장관이 겸임한다.

행정부의 구성은 2원·14부·6처·15청·2외국으로서 경제기획원, 통일원, 외무부, 내무부,

국회의사당 앞에서
치르어진 제14대
대통령취임식



역사

한 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50만년 전으로 추정된다. 그 후 단군이 나라를 세운 기원전 2333년 10월 3일을 개국의 기원으로 보고 이 날을 개천절로 정하여 국경일로 삼고 있다. 한민족은 종족 분류상 몽고계 통구스족으로 알타이어계에 속하는 고유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반도에는 수 많은 부족사회가 세워져 흥망성쇠를 거듭하여 오다가 중앙집권화된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으로 발전하였으며 668년 신라에 의하여 이들 삼국이 통일된 이래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1천 3백여년 동안 통일국가를 유지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주변민족으로부터 9백 30여회의 침략을 받았으나 그때 마다 슬기롭게 물리쳐 단일민족으로서 민족 특유의 언어와 문화 및 풍속을 보존해 왔으며 한번도 이웃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는 평화애호민족이다. 그러나 1910년 일본에 강제 합병되어 1945년 해방되기 까지 36년간 나라의 주권을 잃었던 불행한 역사도 가지고 있다.

한민족과 한국인

우 리 민족은 여러 세기에 걸쳐 중앙아시아와 만주, 시베리아를 거쳐 이주해 온 종족의 후예들이다. 5천년 역사 동안 끊임없이 외침에 시달리면서도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

15세기초 조선의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한글 문자시대를 열었다. 또 우리 선조들은 고려의 금속활자, 조선의 거북선·해시계·물시계·측우기 등과 같은 한민족의 뛰어난 창조성을 나타낸 작품을 만들어 냈다. 이와 같은 독창성은 중국문화의 영향 속에서도 우리 것을 지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웃 일본의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까지 하였다.

오늘날 한국인은 자립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 다양한 종교를 함께 포용하는 신앙의 자유, 최근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성취하는 데 밀거름이 된 근면성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1988년에는 남북 분단의 현실과 약소민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발도상 국가로는 첫번째, 아시아에서는 두번째로 인류의

선사시대의 유적 고인돌



5. 초청과 출입국에 대한 이해

초청절차

중 국 국적 조선족 동포가 한국의 친지를 방문하려면 한국에 있는 연고자(초청자)가 한국의 법무부로부터 발급받아 보내준 ‘사증발급인정서’를 주중 한국 대사관에 여권과 함께 제출하여 사증(비자)을 받아야 한다.

출입국 여행수단

항공편

대한항공이 매주 화, 수, 토요일에 서울-상해간을, 아시아나 항공이 매주 화, 목, 일요일에 서울-천진간을 정기성 전세기편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서울-홍콩간은 각 항공사에서 수시 운항하고 있다. 항공요금은 편도 2등석을 기준으로 서울-상해간은 약 2백50달러, 서울-천진간은 약 3백30달러, 서울-홍콩간은 약 4백50달러이며 무료 탁송수화물 중량은 20키로그램까지이다.

선편

위동항운에서 인천-위해간을 인천 출발, 매주 수·토요일, 위해 출발 매주 월·목요일에 운항하고 인천-청도간을 인천 출발 토·일요일, 청도 출발 월·화요일에 운항중이다. 진천항운에서는 인천-천진간을 5일간격으로 운항하고 있다. 선편을 이용한 무료 탁송수화물 중량은 50키로그램까지이며 편도 선편요금은 90-2백50달러 정도이다. 선박권은 한·중 양국에 있는 선박회사 본사, 인천·천진·청도의 여객터미널 및 양국의 각 여행사에서 발권하고 있다.

입국심사장



통관시 유의사항

휴대품 신고

중 국을 출발하여 한국에 입국할 때 가지고 온 휴대품은 관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세관에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기내 또는 선내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서명한 후 휴대품 검사시 세관공무원에게 여권과 함께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면세통관 물품의 허용범위

입국시 면세통관 허용범위는 여행중 사용하던 것과 입국후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양복, 속옷, 화장품 등 신변용품과 주류 1병, 향수 1병, 담배

10갑 이내 및 해외 취득가격 합계액이 한화 30만원 이하의 물품이다. 다만, 다음에 열거된 물품은 허용한도내에서만 면세통관된다.

주요물품 면세통관 허용한도

주요농산물		주요한약재등	
품 목	허 용 량	품 목	허 용 량
참기름	3.2키로그램	편자환	10알
참깨	1키로그램	모발재생제	2병(병당 100ml)
잣	1키로그램	재조환	20병(병당 8g)
꿀	5키로그램	우황정심환	30알
고사리·더덕	합계 3키로그램	활락환	10알
버섯	1키로그램	두충호골환	10병(병당 100알)
모시	2필	각중우황환	10알
삼베	2필	우황강압환	30알
기타 품목	2키로그램 내외	기타약	3병(갑)

* 농산물은 총 구입가격이 한국화폐로 10만원 이하

* 한약재는 10품목 이내에서만 통관 허용

과세통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농산물 및 한약재 등은 관계기관의 허가나 추천이 있어야 과세통관되며 선물용으로 인정되는 녹용(0.5키로그램), 삼베(3필), 모시(3필)는 허가나 추천없이 기준범위 내에서만 과세 통관된다. 다만, 호도, 인삼류등은 통관이 제한된다.

통관이 규제되는 물품

통관이 규제되는 물품은 무기류, 마약류, 무선통신기기, 비디오카메라 등으로서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야 통관되며 십전대보탕, 사분, 녹태고, 주사, 녹신, 호피 등은 조수보호,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반출이 제한되는 물품

도자기 등 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물품, 100매 이상의 국내음반, 마약류, 총기류나 국가보안에 관계되는 서류, 책자, 규정 이상의 외화는 반출을 제한하고 있다.

체류기간 연장

사 증발급시 방문목적에 따라 적정한 기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체류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연장을 허가하고 있다.

질병등 출국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체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연장해야만 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출국예정 항공권 또는 선박권 사본을

1. 그리운 고국은 어떤 곳인가?

지리

한 반도는 북으로 중국의 만주와 러시아의 연해주에 접해 있고 남으로는 1백 20 킬로미터 정도 거리의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떨어져 있다. 한반도의 면적은 3천 4백 18개의 섬을 포함하여 22만 1천 평방 킬로미터(남한 9만 9천 평방 킬로미터)이다. 반도의 동쪽에는 풍치 좋은 산들이 연이어 산맥을 이루고 있으며 그 지맥들이 서쪽으로 뻗어나 국토의 70퍼센트 가량이 산으로 뒤덮혀 있다.



인공위성에서 찍은 한반도

기후는 4계절이 확실한 온대성이며 겨울에는 삼한사온 현상으로 추위를 견딜 만하다. 연간 강우량의 절반 정도가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 집중되어 있으며 태풍은 우기 동안과 우기 직후인 7월 하순부터 9월 사이에 한반도 남부에 가끔 불어 올 때가 있다.

1992년 12월말 현재 인구는 4천 4백만명이며 인구밀도는 1평방 킬로미터당 4백 40명으로 세계 3위이다. 북한동포 2천 2백만명, 해외동포 5백만명을 합하면 지구상에 한민족은 7천여만명에 달한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한반도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한국)과 공산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으로 양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남쪽에 위치한 한국은 수도인 서울특별시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5개 직할시 그리고 9개 도로 구분되며 각 도는 다시 시와 군으로 나누어진다. 전국적으로는 68개 시(특별시, 직할시 제외)와 1백 36개 군이 있다.

책을 펴내며

몇년 전까지만해도 세계를 지배했던 냉전의 높은 울타리에 가로막혀 여러분들은 고국 땅 한국을 와보고 싶어도 올 수 없었으나 이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자리잡혀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국제환경의 대변혁을 바라보며 우리민족도 분단의 쓰라린 역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통일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를 계기로 한·중관계가 개선되고 1992년 역사적인 양국의 수교까지 이루어져 고국을 찾는 동포들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사회체제를 가지고 있고 각종 제도와 생활양식의 차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국에 체류하는 동안 여러가지 당황함과 불편함을 느끼실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한국과 우리 민족의 참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책을 펴냈습니다.

이 안내서는 분단된 고국에 오신 동포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는 통일문제를 비롯하여 한국사회의 개황·우리 민족과 한국인의 생활·바람직한 한국 체류방법·초청과 출입국 절차 등을 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여러가지 정보들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고국 여행에 충실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993년 7월

통일원 교육홍보국

중국 조선족동포를 위한 고국방문안내

발행 1993년 7월
 발행처 통일원 교육홍보국
 편집 디자인 하이트
 인쇄처 정문신문회주식회사

표지사진: 여의도 상공에서 바라본 한강변 서울의 모습

